吏讀의 段·矣考

—處格의 比較試圖—

李 崇 寧

一

現下 우리 學界에 流行되는 文法이란 一種의 學校文法(Schulgrammatik)이어서 所謂『말본』이란 新術語가 주는 實感과도 같이『글은 이 같이 쓰라』의 命令의 文法이요, 當爲(sollen)의 文法이며 規範의 文法이다. 그것은 言語의 發達을 忘却한 듯 言語史의 形態論의 考慮도 않고 또는 進展하여가는 살(活) 發展體의 言語를 죽은, 그리고 固定된 形骸로 보고 第二의 綴字法然한 것이니 이것으로는 到底히 滿足할 수가 없다. 文法哲學的 考慮 다시 나아가서는 人類言語의 形態論의 本質을 밝히고 高位의 文法을 엮을 一般文法(Allgemeinegrammatik)에까지 企圖하여야 함이 우리의 窮極의 目的이어야 한다.

요사이의 學校文法이 完全한 共時論(Synchronie)的 問題될 수도 없지마는 우리는 于先 歷史文法의 研究가 基盤이 되어야 할 것을 自覺함직 하다. 完全한 歷史文法이 理論上 可能한 것이라는 論難의 餘地가 있음은 勿論이나 지금은 晩時之歎이 없지 않지만 文法學의 考慮와 아울러 歷史文法의 研究가 火急한 것이어서 各項目을 課題로 各自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筆者는 格의 研究의 一端으로 吏讀에 나타난『段·矣』兩字를 考

察하고 아울러 우랄·알타이諸語의 處格과의 比較研究를 꾀하고저 하지만 避亂中이라 座右에 아무런 資料集도 整備할 餘地가 아니기 讀者의 諒察을 바란다.

二

吏讀의 文章과 用字를 考察하면 李朝以前의 言語를 再構함에 어느 暗示를 얻는 것 같다. 그 用字中에서 奇異한 것의 하나는『段』字例라 하겠다.

例. 不多爲乎事段 안물ᄒᆞ온일딴 ……

…… (뜻. 아니 하온 일은)

不多爲臥乎事段 아니ᄒᆞ누온일딴……

…… (뜻. 아니 하는 일은)

其矣叟段置 그의무리딴두 …… (뜻 그네들도)

是如爲臥乎事段 이다ᄒᆞ누온일딴

…… (뜻. 이리하는 일은)

爲臥乎事叱段 ᄒᆞ누온일딴……(뜻. 하는 일은)

節段置 젓단두(ᄌᆞ디웟단두) ……

…… (뜻. 지금도, 요즈음도)

上例에서 段이 主로『事』字에 連結되며 또는 名詞에 連結되어 主格을 나타내고 있다. 果然 이 段이 무엇일가에 疑訝를 품게 된다.

다시『矣』字의 用例를 보면 두 개의 音의 表記가 있으니 그 하나는 所有格(領格 屬格)의『의』이니 이것은 當然하다 하겠다.

例. 汝矣身乙 너의몸을

其矣徒 그의네……(뜻. 그네들 그들)

그리고 또 하나의 用例는『矣』字를『되』로 읽는 例가 흔한 것

이다.

例. 是如爲乎矣 이다ᄒᆞ오ᄃᆡ……(뜻. 이러하오되)

是如爲白乎矣 이다ᄒᆞᄉᆞᆸ오ᄃᆡ……(뜻. 이라하옵시)

敎是白乎矣 이시ᄉᆞᆸ오ᄃᆡ……(뜻. 이시엿사오ᄃᆡ)

使內不得爲乎矣 바ᄅᆡ못질ᄒᆞ오ᄃᆡ……

……(뜻. 시키지 못하되 쓰지못하되)

令是白乎矣 시기ᄉᆞᆸ오ᄃᆡ……(뜻. 시키시거니와)

이것은 차라리 『乎矣』로 計算할 것이며 『오ᄃᆡ』로 보아야 하며 『矣』字는 『ᄃᆡ』의 表記로 봄이 옳을 것이지만 어찌하여 『矣』를 가지고 『ᄃᆡ』의 t音을 表記하려 하였나ᄒᆞ 疑問을 가지게 한다. 『矣』字를 所有格의 『의』와 『ᄃᆡ』의 兩字兼用에는 무슨 理由가 內包되지 않았는가의 豫想을 가지게 된다. 이를 爲하여 여기 暫時 論題의 方向을 바꾸기로한다.

國語의 格은 아직것 數조차 決定되지 않은 터이나 本論에 所要되는 格의 一般形만을 例示하면 다음과 같다.

絕對格	(Absolutive)	은, 은, ᄂᆞᆫ, 는
主格	(Nominative)	이 (ㅣ)
處格	(Lokative)	애, 에, 의, 의
所有格	(Genitive)	ㅅ, (의, 의)
對格	(Accusative)	을, 을, 를, 를
具格	(Instumental)	으로, 으로, 로

絕對格이니 함은 에카르트 (A. Eckardt) 氏의 命名이나 近者 外國學者中에서 使用하기 그대로 轉用하나 元은 Casus absolutus 로 되어있다. 所有格에 『ㅅ』을 넣을 것이냐는 問題이며 震檀學報 第十五卷에 『龍飛御天歌의 子音揷入云云』의 所論도 있지만 비록 『ᄉᆞᆺ』等의 使用例가 있다하여도 所有格的 性格이 있었음은 李朝初期에서 그리 느껴지는 터이어서 現代語의 『사잇시옷』과는 全然 濃度가 다르다 하겠다.

聖人ㅅ마리시니 (聖人之語 金剛經序)

淨飯王ㅅ뫼아ᄃᆞ니ᄋᆞᆫ 釋迦如來시고 (月印釋譜二)

여기서 이 『ㅅ』이 實際로 發音될리 없는 位置에 있으니 即 『ㅅ』이 有聲音 n 또는 ng 와 m사이에 끼어 發音될리 없는 符號化 되었으며 所有格의 意味로 言語大衆(言衆)이 意識하였던만치 여기는 機械的으로 보아 이 『ㅅ』을 單純히 音相的인 現象으로 볼 것은아니다. 그러므로 所有格으로 봄이 當然하다 하겠다. 『에』로 處格이나 『뎌에더어(勝彼)』에서는 比較의 구실의 Equative 이고 『기쁨에 날뛴다』에서는 原因의 구실의 Kasus-Final 이고, 『돈에 술에 계집에 ……』에서는 Comitative 이고, 『집에 간다』에서는 Latvie 또는 Illative, Allative 이고, 『正月三日에 왔다』에서는 Temporal 이니하면 限이 있을리 없기 여기서는 덮어두고 後日로 밀우기로 한다. 그러면 以上 諸格은 母音群 또는 子音群形成을 忌避하는 調音(Euphonie)的 技巧에서 母音 (이것은 Bindevo'kal 的 구실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으로 始作된 形態임이 一般 다.

은 운, 을 울, 이, 애 에 이 의, 으로 으로

勿論 『은, 는』은 『ㄴ』의 倍加法에 依하여 n,∼n, n∼n (∼은 母音 介在의 位置) 의 n∼n의 形態이고, 『를, 룰』은 『ㄹ』의 倍加法으로 l (r),∼ (r), r∼l (r) 의 r∼l (r) 의 形態이어서 國語史의 古代音韻論上의 어느 暗示를 던져주는 것 같다. 여기 母音調和의 加工을 除去하면 極單한 形態로 換算할 수 있으나 假令 『이, 을, 으로, 애, 의』로 單一化하여 본다면 (그래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나) 여기 用言의 活用形中에 이와 對應되는 語尾 即 接尾辭를 發見하게 된다. 格도 語幹+接尾辭 (Stemm+Suffix) 의 關係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現下 學校文法에서 獨立品詞로 다룸은 歷史文法을 모르는 態度라 하겠으며 一例로 主格 『ㅣ』 音節形成의 不能의 表示)를 가지고 獨立 形態라고 볼 수 있으나, 또는 『보리기른남ᄀᆞ』 俱聲니로사대 에서는 主格은 存在하나 聲調(音節)의 關係은 남겨도, 形

態가 있을 수 없다는 이 事實만 가지고도 意味와 形態를 무게에서 同視하려는 그릇된 態度는 否認될 것이다. 여기에 對하여는 분트 (Wundt) 에서 마르티 (A.Marty), 그리고 다시 풍케 (O.Funke) 의 理論까지 보면 될 것이요, 簡單히 손네샤인敎授 (E.A.Sonnenschein) 의 말

『格은 意味範疇를 表示하는 것이요 形態範疇를 表示하는 것은 아니다』

에서 重言할 必要도 없다고 본다.

그러고 보니 같은 接尾辭인, 名詞의 曲用 (Declension) 語尾와 用言의 活用 (Conjugation 語尾를 比較하면 興味있는 對應形을 얻게 된다. 그것을 表示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格		活用形의 接尾辭
(主 格)	이	다
(絕對格)	온	돈
(所有格)	ㅅ	듯
(處 格)	의	디
(對 格)	을	들
(具 格)	으로	드로

위 에서 處格에 何必『의』를 配列하느냐는 疑問할지 모르나『의』가『의』와 거부터 所有格과 處格에 쓰이었음은 勿論이나 處格的 性格도 相當히 强하였던 듯 一般語形에서 보더라도『의, 의』가 處格的 語形을 이룬

밧긔 (外), 우희 (上), 어듸 (何處), 어늬, 거긔, 여긔, 부텨ㅅ긔 (與格), 알핀 (前), 올ᄒᆞᆫ녀긔 (右側), 처어믜 (初) .....

等이 있다. 여기서는 對應形의 形便上『의』를 特別히 配列하여 놓는다. 그러고 보니 果然 이 『디 듯 들 듸 듯 로』가 어찌 使用되었나를 簡單히 例示하여 보자.

(1) 디

ㄴ. 디 型

또大乘은ᄒᆞᆫ갓손발시수ᄆᆞᆨ모조ᄒᆞ물삼는디아니라 (又大乘 不獨以洗手足爲淨, 金剛經)

聖女ㅣ또무로ᄃᆡ내어미죽전디아니오라니녀시어ᄂᆞᆫ趣에간동몰라이다. (月印釋譜廿一)

b. ㄹ디型 例 省略

c. 디 型 例 省略

여기서 「ᄂᆞ디아니……」는 그 뜻이 「……하는 것이 아니라」의 主格的 意味이다.

(2) ᄃᆞᆫ

a. 第一類의 ᄃᆞᆫ

願ᄒᆞᄃᆞᆫ내生生애그딋가시ᄅᆞ외아지라. (月印釋譜一)

너비願ᄒᆞᄃᆞᆫ모ᄃᆞᆫ어ᄃᆡᆫ施主와보며ᄃᆞ모ᄭᅦ미ᄎᆞ닌다歡喜ᄅᆞᆯ내야 (五台山上院寺重創勸善文)

이 「ᄃᆞᆫ 은 「…하는 것은」의 「은」과 對應되는 絶對格的 뜻임은 疑心할 餘地가 없다. 그러나 李朝初期에 있어서도 이러 別個의 「ᄃᆞᆫ」이 있으니 그것은 다음의 例이다.

b. 第二類의 ᄃᆞᆫ

네ᄒᆞ다가法을得ᄒᆞ야ᄃᆞᆫ몬져모ᄃᆡ니ᄅᆞᆯ濟度ᄒᆞ라 (六祖法寶壇經)

ᄒᆞᆫ그ᄃᆡ알ᄒᆞᆯᄉᆞ머ᄃᆞᆫ그알히이믈ᄒᆡ보ᄆᆡ뼈나 (七大釋)

勿論 a의 例와는 連結方式이 다르므로 同一視할 것은 아니며 「ᄒᆞ거든, 가려든」의 「든」과 對應되는 「ᄃᆞᆫ」이어서 一連의 體系에서 보아 a의 例를 重視하고 b의 例를 別個의 「ᄃᆞᆫ」으로 다루려 한다.

(3) ᄃᆞᆺ

ᄆᆞᆯ기알안ᄃᆞᆺᄒᆞ며괴취잡ᄃᆞᆺᄒᆞ며 (禪家龜鑑)

열운어름ᄇᆞᆯᄃᆞᆺᄒᆞ야모ᄆᆞᄆᆡ뎌目ᄆᆞᆯ기우려女妙ᄒᆞᆫᄉᆞ리ᄅᆞᆯ바ᄃᆞ며 (禪宗永嘉集)

이 「ᄃᆞᆺ」의 뜻은 「如」이나 a=b가 아니라 a:b의 比例, 類似의

뜻이어서 「…… 然하게, ……的, 비슷하게」라 보아야 하며 그렇다고 所有格的 意味라고 附會코저 않으나 적어도 形態의 面을 重視하여 둔다.

(4) 듸

a. 第一類의 듸

衆의 안존딜조촐씨 (隨衆所坐 金剛經)

혼듸겨시니라 (同處 同上)

사ᄅᆞ미어드운듸드러 (……人 入闇 同上)

b. 第二類의 듸

ᄒᆞ듸 닐오듸 (謂) ᄒᆞ샤듸 하듸 (多) ……

이 例는 主로 「語幹ㅣ오 (우) ㅓ듸」의 構成이어서 뒤에 「듸」로 變異한 것이나 「듸>되」가 아니라 「오듸, 우듸>되」로 된 것이다. 여기에는 音韻論的 解釋ㅣ 可能하며 意味에서 處格의 「의」와 連結시키기는 困難하다. 本論에서 第一類에 「듸」를 重視하여 둔다.

이것은 두말할 것 없는 處格의 뜻이어서 오늘날 「데」는 「곳」이라고 換算하고 있으나 事實은 上例와 같이 活用形의 接尾辭 「듸」를 分離 抽出한데 지나지 않는다.

(5) 들

a. 第一類의 들

能히修行ᄒᆞ면다成佛ᄒᆞᆯ들아ᄅᆞ미니 (但能修行盡得成佛 金剛 13)

내말아닌들볼기니 (明不自說 同上)

師ㅣ衆人이놀라황당히너기ᄂᆞᆫ들보시고 (師見衆人驚怪 六祖法寶壇經)

이것은 뜻이 「……하는 것을」이어서 問題없이 對格 「을」 對應되는 것임을 알 것이다. 그러나 李朝初期의 別個의 「들」이 存在했다.

b. 第二類의 들

楊子江南을ᄀᆞ려ᄒᆞ샤使者ᄅᆞᆯ보내심ᄃᆞᆯ七代之王을뉘미ᄀᆞ리ᄋᆞᆺ가 (龍飛御天

歌)

이 第二類의 『돌』이 近代에 와서 優勢하여져 條件文으로 使用되어 왔다.

(6) ᄃᆞ로

이런ᄃᆞ로 (是以로 各諺解에 많이 使用됨)

여기 漢文吐의 『로 (<ᄋᆞ로 으로)』와 比較하여 『ᄋᆞ로』對 『ᄃᆞ로』의 對應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제ᄃᆞ록 저므ᄃᆞ록……』의 『ᄃᆞ록』은 이 『ᄃᆞ로』와 關聯 있음직 하며 本項에서 論할 것은 아니지만 『돌히 (複數形)』도 本 體系와 關聯 있을 것으로 믿어지는 터이다.

以上을 結論하면 格의 『이, 온, ㅅ, 의, 을, ᄋᆞ로』와 『더, 돈, 듯, 뒤, 돌, ᄃᆞ로』가 비록 『ᄃᆞ』의 意味論上의 連結이 不充分하였지만 틀림없는 對應形의 體系임을 疑心할 수 없을 것이다.

三

吏讀의 特異한 用字인 『段』은 以上에서 論한 바 더, 돈, 듯, 뒤 돌, ᄃᆞ로』의 體系에 보아 『돈』을 表記한 古體임을 斷定할 수 있으며 『矣』字가 『의, 뒤』의 두音 表記의 兩面을 가졌음도 當然하다 하겠다. 逆의 論理로서 『矣』字가 『의, 뒤』의 兩音을 表記하므로서 두 體系의 對應을 더욱 굳게 믿게 된다.

本論은 여기서 다시 새로운 局面으로 들어가게 된다. 國語의 格이 비록 調音的 技巧와 母音調和的 加工이 있었다 하여도 『이, ㅣ, 온, 운, 을, 을, 의, 의, 애, 에, ᄋᆞ로, 으로, 와…… 와 같이 母音을 頭音으로 하는 形態에는 疑訝를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이 古代 即 原始朝鮮語의 時代부터의 原形인가에는 一考를 要하게 된다. 여기에는 原形과 같이 後世의 獨自的 發達이 있었던 듯 여겨지노. 그것은 [illegible]語에서 너무도 동떨어진 奇異한 體系이기고 그의 發達을 [illegible]터이다.

李朝文法에서도 具現된 現象이지만 國語의 格의 本質的인 그리고 起源論的인 性質을 보여주는 듯한 格의 形態와 活用語尾가 같이 『語幹十接尾辭』의 形成으로 對應되는 事實이다 名詞 代名詞도 語幹로 看做할 수 있느냐를 지금에와서 疑心한다하면 그것은 問題삼을 必要도 없는 妄論일 것이니. 印歐語의 文法論을 보면 自然 알것이다. 그러면 깊이 들어갈 것이 아니지만 格과 活用語尾를 比較하면 그 同系的인 對應을 알수 있다.

	格 (Stem+Suffix) Suffix	活用語尾 (Stem+Suffix) Suffix
絶對格	本은……은	높 (高) 은……은
	國은……은	굳 (堅) 은……은
	道ᄂᆞᆫ……ᄂᆞᆫ	보 (見) ᄂᆞᆫ……ᄂᆞᆫ
	父는……는	우 (泣) 는……는
共同格	밥(飯)도 술(酒)도……도	오 (來) 도 가 (去) 도……도
	술와, 밥과……와, 과	알 (知) 오, 가 (去) 고……오, 고
呼格	福童아! 아	엇아? 엇가? (疑問文)
主格	阿難이……이	阿難이라……이라
	子ㅣ……ㅣ	子ㅣ라……ㅣ라
	불휘……(Zero 形態)	불휘라……Zero+라
處格	道에……에	알 (知) 에……에
	즐(多 方言 게……게)	가 (去) 게……게
對格	本을……을	높 (高) 을……을
	國을……을	굳 (堅) 을……을

上表의 對應作成은 完全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으려나 格과 活用語尾와는 接尾辭로서 密接한 關聯이 있고 上表의 所載된 것을 가리킴은 아니지만 本質的으로 또는 起源的으로 同系의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이것이 國語의 格에서 가장 明白히 具現된 現象이라 하겠다. 吏讀의『段, 矣 사 類者의 걷친 듯이 考證됨도 이것을 달

하는 것이 아닐가 한다.

그러면 「이, ㅣ, 은, 는, 을, 를, 의, 의, 애, 에, 으로, 으로, 와……」와 같은 格은 (勿論 子音倍加法으로 ᄂᆞᆫ, ᄂᆞᆫ, ᄅᆞᆯ, ᄅᆞᆯ, 이 存在하지만) 너무도 奇異하여 우랄·알타이語의 格과 關聯性이 없어도 보인다.

筆者는 위의 格과 活用語尾의 同系的인 性格에서 여기 假說을 提起하느니 이 吏讀의 「段, 矣」字를 中心으로 보아 古代에 格의 發達에 있어서 原始알타이語에서 分岐된 뒤 音韻論的 加工과 類推(Analogy)로 因한 統一이 作用되어 格의 形態가 活用語尾와의 關聯下에 어느 程度의 獨自的 發達이 있어 오늘날과 같이 우랄·알타이語와의 懸隔한 距離가 생겼을것이 아닐가 한다. 그것은 우랄·알타이諸語의 處格또는 與格이 「矣」字의 「ㅣ」를 取할진대 整然한 一致를 보여주는 까닭에 여기 着眼하는 바이다.

우랄·알타이語의 處格 또는 與格을 考察하면 處格 또는 與格은 一部를 除外하고 d, t, n으로 子音을 가지고 있다. 綜合的 見解로서 가스트렌 (Castrens Grammatik der Samojedischen Sprachen, St, petersburg, 1854) 氏의 研究에 依하면 사모예드 (西北部 시비리아) 語에서는 西部方言에서는 ~d (nd) 또는 t 東部方言에서는 恒常 ~d (nd) 와 t 이고……카마신語 (Kamassinische) 에서는 處格이 ne, de, te 엔니세이 (Jenissei) 方言에서는 do, to, 오스챠크 (Ostjak) 方言에서는 nd 타우기 (Tawgy) 方言에서는 tay (ay (이것은 蒙古語에서의 借用인 듯), 蒙古語에서는 與格과 處格이 恒常 dan (tan) 이며, 부리야트 (Burjat) 語에서는 da, de, do, dö, 또는 da, to, te, tö 이다. 要컨데 蒙古語 부리야트語의 與格또는 處格이 사모예드語의 格과 關係가 있고 通古斯語의 de, te (du, tu, dü, tü) 와도 一致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드니 (J. Deny의 「世界의 言語」中의 論文) 氏에 依하면 蒙古語의 與格, 處格, ~dur (~tur), ~dn (tn), ~da (~a) 이고 滿洲語는 ~da 通古斯語는 ~du 土耳其語의 與格은 다

르기 여기 싫지 않기로 한다. 그러면 筆者가 더 具體的인 것을 다음에 例示하여 보 겠다.

滿洲語에서는

主格과 呼格 bira (江) ……形態無
所有格과 具格 bira—i
處格과 與格 bira－de
對格 bira－be
奪格 bira－ci

蒙古語에서는 du, dü, tü 로서

xerek—tü (事에), axa～du (兄에) gaxai～du (豚에) ……

와 같이 連結되는 土耳其語中 오스만語 (Osmanisch.e 에서는 處格은 ev～da (집에) qus～ta (鳥에) 로 되었다.

要컨데 알타이語의 處格 또는 與格은

de, te, du tu, dü, tü, da, ta, do, to, dö, tö 임을 알 수 있으며 우랄語로 들어가서 ～d (～nd) ～t로 되었음을 알 수 있어 整然한 類似를 體系的으로 보여준다. 勿論 著書, 著者, 調査時代, 方言의 種別, 發言表記의 不一致로 差異는 있으나 大體 어떠한 것임을 알 수 다.

여기 吏讀의 『矣』字가 『의, 듸』로 읽혀졌음을 생각하여 이 『듸』가 原始朝鮮語의 變貌가 『의』가 아니었던가의 推測을 내려본다. 그리하여 우랄·알타이語의 比較研究의 新局面을 열어볼가 하 바이다. 따라서 이 『듸』가 다음과 같 알타이 諸語와의 關係을 가진 것이라는 推定表를 作成하였다.

Samoyed語
Kamassin語 ne, de, te
Yenissei語 do, to
Tawgy語 dang, tang
土耳其語 Osman語 da, ta (locative)

蒙古語通	du tu da ta a dur tur
Buryat語	da de do dö ta te to tö
通古斯語	de te (du tu dü tü)
滿洲語	de (dä)
朝鮮語	dai tai

近者 入手한 람스테트博士의 『朝鮮語 語源의 硏究 (G.J.Ramstedt: Studies in Korean Etymology, Helsinki 1949)』를 偶然히 들처 『듸』의 條項을 보니 다음과 같이 쓰여있다. (國語의 羅馬字化는 筆者가 活字 便宜上 한글로 複寫하여 놓는다)

듸……place, site: used as postparticipial noun in the sense of place or time: 갇대 : a gone-place > a trace, a visited place, 쓸대 (略) a need (a place which one use), 어대: where <what or which place (略), 이대:here (<예듸), 저대 (there) (<더듸), etc:,

여기까지는 그리 新奇한 것은 없고 더구나 지나친 『이대 저대』 같은 例는 問題꺼리며 『어대』의 解釋은 注意할만 하다. 그러나 그 끝으로 다음과 같은 疑問을 던진 것은 좋은 着眼이라 하겠다.

? cf. 通古斯語 -du, -tu, 滿洲語 -de, 蒙古語 -da, -de (-ta, -te) 또 d-dur (-tur), 土耳其語 -da (-ta) ~ -dä (-tä), the suffix of the locative case.

람스테트氏의 좋은 이 着眼이 그의 國語에 對한 基本知識이 不充分하였기 (無理도 아니지만) 이 程度의 疑問을 던진데 그쳤다, 그러나 氏의 學問系統을 어림풋이 짐작하는 筆者로서는 國語에 對한 여러 論著의 力과 着眼에는 敬意를 表하는 터이다.

以上으로서 筆者는 文獻 또는 方言을 通하여 國語의 硏究를 發展시키면 國境을 넘어서 舊殼을 벗고 새로운 分野 l 開拓이 可能한 것이라 믿는다. 本論을 끝 막음에 座右에 適當한 文獻도 없고 混亂中 書齋도 꾸밀 수 없으며 紛失된 文獻과 資料集도 未整理이

기 여기 舊노오트를 中心으로 平時의 所懷를 편 셈이니 轉寫의 誤記와 混亂이 있지나 않을가 두려워하는 터이다. 讀者의 諒察을 바라 마지 않는다.

(癸巳 1. 3)